

“꽃과 정원 어우러진 장성 황룡강서 가을 만끽하세요”

18-26일 6개 주제정원 ‘가을꽃축제’

좀비 피해 달리는 ‘J-라이트 런’ 선포

오케스트라 공연·송가인 무대 등 풍성

‘가을 여행 명소’ 장성군에 조성된 황룡강 주제정원이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부상 중이다.

16일 장성군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지방정원 조성공사’를 통해 총 6개의 주제정원을 황룡강 일원에 만들고 있다.

전통적인 오방색에서 착안해 주제 색을 정하고 구간별로 ▲황룡정원(황) ▲홍담정원(적) ▲청백리정원(백) ▲푸른물빛정원(청) ▲검은숲정원(흑)을 조성 중이다.

여기에 지난 5월 ‘전남도 정원 페스티벌’ 때 조성된 작가정원·초청정원·시민참여정원을 보존한 ‘잡여정원’이 더해졌다.

가장 많은 발길이 모여드는 곳은 ‘황룡정원’이다. 옛 공설운동장 부지에 장성 잔디를 심고, 강변 쪽에는 음악 분수와 상설 무대를 설치했다.



장성군이 오는 18-26일 6개 주제정원에서 ‘가을꽃축제’를 개최하는 가운데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황룡정원, 청백리정원, 홍담정원.

무대를 바라보며 앉을 수 있도록 부채꼴 모양으로 계단을 만들고, 단차를 뒤 공연을 관람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했다. 정원 외곽을 포근하게 감싸는 소나무와 은목서가 경관의 완성도를 높인다. 황룡강을 대표하는 정원으로 매년 봄·가을 축제 주무대가 마련되는 장소다.

‘황룡정원’이 방문객들로 사랑받는 이유는 ‘자유로움’에 있다. 어디서건 돛자리를 펴고 앉아 축제를 즐기거나 가족들과 나들이를 즐길 수 있다.

햇볕이 부담스럽다면 나무 그늘 쪽에 자리를 잡으면 된다. 주차장, 도롯가와 가까워 접근성이



〈장성군 제공〉

뛰어나다. 저녁에는 석양을 바라보며 음악 분수와 야경을 감상하기에도 좋다.

서삼교와 문화대교 사이에 조성된 ‘홍담정원’은 애기단풍 물든 백양사의 가을 풍경을 담았다. 붉은색을 주제로 홍가시나무, 매자나무, 영산홍, 배롱나무 등이 다소곳이 자리잡고 있다.

장성제1교 옆 ‘청백리정원’은 장성이 배출한 조선시대 청백리 아곡 박수량 선생(1491-1554)의 백비(白碑)에서 모티브를 얻었다. 잔디와 흰 돌로 원 모양을 그리며 디자인한 정원의 모습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정원 중심부에는 흙길을 따라 올라갈 수 있는 언덕이 있어 황룡강 풍경을 내려다볼 수도 있다. 매점과 주차장, 화장실과도 가깝고 강 건너 연꽃정원으로 이동하기에 좋다.

검은색 수종의 식물로 꾸며질 ‘검은숲정원’과 연꽃, 초화류로 자연의 맛을 드러낼 ‘푸른물빛정원’은 2026년까지 완공하는 것이 목표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18-26일 열리는 ‘장성 황룡강 가을꽃축제’에서 가을꽃과 주제정원의 조화로운 풍경을 한껏 만끽해 보길 바란다”며 “방문에 불편이 없도록 세심한 준비를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장성 황룡강 가을꽃축제’는 지브리·디즈니 애니메이션 주제곡 오케스트라 연주와 송가인의 축하 무대, 좀비를 피해 황룡강을 달리는 ‘제이(J)-라이트 런’ 등 다양한 콘텐츠가 마련됐다. /장성=김문태 기자

‘고흥분청사기’ 특화상품 개발 본격 착수

전국 최초 생활도자 브랜드 구축

대중화·고급화 라인 생산 다각화

고흥군이 ‘고흥분청사기’ 특화상품 개발에 나선다.

16일 고흥군에 따르면 분청문화박물관은 지난 13일 ‘고흥분청사기 특화상품 개발’ 운영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고 전통 분청사기의 현대적 상품화와 생활도자 브랜드 구축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시제품 개발 추진 현황과 주요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보완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특화상품 개발은 고흥 지역의 원료를 활용해 전통 분청사기의 미감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것으로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생활도자 특화사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보고회에서는 ▲현대적 감각의 디자인 강화 ▲소비자층 세분화 전략 ▲지역 원료 활용과 기능성 홍보 ▲다양한 생산체계 구축 ▲지역 축제 연계 홍보 ▲생활도자로서의 위생·안전성 확보 등의 주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분청사기의 전통적 미감을 유지하면서 현대 생활공간에 어울리는 실용적 디자인 개발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에 따라 군은 올해 진행 중인 시제품 개발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고흥분청사기 시제품.

〈고흥군 제공〉

에는 ‘고흥분청사기 상품 브랜드’를 추진해 디자인 콘셉트와 브랜드 방향을 체계적으로 확립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층을 가정용·카페용 중심의 대중화 라인과 도예가 협업 한정판의 고급화 라인으로 구분해 생산 전략을 다각화하기로 했다.

공영민 군수는 “고흥분청사기의 전통성과 현대성을 조화시켜,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쓰임새 있는 생활도자 브랜드로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브랜드를 추진해 고흥 도자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체험·관광이 연계된 새로운 고흥군의 문화경제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흥군은 12월 최종보고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시제품 제작을 완료하고, 2026년에는 브랜드 통합 구축과 시범 생산을 추진해 공공기관 보급 및 시장 반응 검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소비자 피드백을 반영해 품질을 개선하고, 대량생산 및 본격적인 상품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박현진 기자

여수시, ‘UNFCCC 기후주간’ 후보지 선정 기념행사

탄소중립·COP33 개최 기반 강화

지속 가능·기후행동 중심지 부상

여수시가 ‘2026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기후주간(Climate Week)’ 국내 개최 후보지로 선정된 것을 기념하며 기후행동 도시로의 비전을 다졌다. 〈사진〉

16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전남문화예술포에서 ‘2026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기후주간(Climate Week)’ 국내 개최 후보지 선정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고 유치 의지를 다졌다.

이번 행사는 여수시의 기후주간 국내 개최 후보지 선정을 축하하고 최종 유치 및 2028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정기명 여수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해 시·도의원, COP33 남해안남중권 유치위원회, (사)탄소중립실천연대, 여수선언실천위원회, 동서포럼, 여수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여수YMCA, 탄소사냥꾼연합회 등 2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행사는 ▲시민단체 대표의 결의문 낭독 ▲전남도립국악단 및 어린이 탄소중립 태권도 시범단의 축하공연 ▲퍼포먼스와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결의문에는 ▲기후주간 유치 및 성공 개최 노력 ▲탄소중립·지속가능발전 실천 ▲COP33 유치를 위한 지역공동체 연대다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기후주간은 COP 개최 전 세계 187개국 정부와 국제기구, NGO 등 약 5천여명이 참여해 고위급 회의, 포럼, 세션 등을 진행하는 국제행사로, 각국의 기후의제를 COP 공식안건에 반영하는 중요한 사전 논의의 장이다.

여수시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공모에서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 경험과 2008년 국

내 최초 기후보호주간 운영 등 선도적인 기후행동 도시로서의 역량을 인정받아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

여수시는 앞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남도, 시민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기후주간 유치를 위한 국제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COP33 유치 기반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정기명 시장은 “이번 기후주간 유치는 COP33 유치 역량을 보여줄 전략적 디딤돌이자, 2026여수세계박람회와도 연계되는 큰 기회”라며 “여수를 중심으로 전 세계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논의하고 기후위기 대응 리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장흥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3억 돌파

답례품 다양화·이벤트 운영 성과

장흥군은 16일 “2025년 한 해 동안 모금된 고향사랑기부금이 3억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장흥군은 올해 초부터 전국 향우회와 각종 축제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성과는 답례품을 다양화하고 계절·명절이벤트 운영으로 참여를 유도한 결과로 풀이된다.

김성 장흥군수는 “장흥군을 아끼고 응원해 준 모든 기부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소중한 기부금은 취약계층 지원과 청소년 장학사업, 주민 복리 증진 등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도 기부문화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전략과 특색 있는 답례품 발굴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장흥=노형록 기자

순천 대표 농산물 ‘참다래’ 본격 출하

110t 일본 수출…市, 물류비 지원

순천시는 16일 “지역 대표 농산물인 참다래 20t이 본격 첫 출하 됐다”고 밝혔다.

순천 참다래는 풍부한 일조량과 온화한 기후 조건에서 재배되어 과육이 부드럽고 향이 진한 것이 특징이다. 약 50ha의 재배 면적을 확보하고 있으며 향후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아 약 637t 이상 출하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출하 물량 중 110t은 일본으로 수출되며 시는 수출 물류비 지원과 마케팅 강화를 통해 농가 소득 안정과 수출 확대를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 참다래는 농가의 노력과 시의 지원이 어우러져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품질 참다래 육성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품질 관리와 유통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정기 기자

‘보전·관리 동참’ 담양 대나무밭 팜파티 성료

담양군은 “최근 세계중요농업유산 크라우드 펀딩 성과를 기념하는 ‘담양 대나무밭 팜파티’가 담양읍 삼다2리 내다마을 대나무밭에서 열렸다”고 16일 밝혔다. 〈사진〉

이번 팜파티는 후원자와 주민이 함께 성과를 나누고 교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후원자 30여명이 초청돼 지역민과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행사에서는 대나무밭 산책, 죽로차 시음, 담양 식재료로 구성된 ‘대밭 한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돼 대나무의 가치와 매력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행사에 참여한 후원자는 “담양의 대나무밭을 직접 걸으며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니 대나무의



소중함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윤재휘 대담한 담양대밭 대표는 “이번 팜파티를 통해 도시민과 함께 대나무밭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대나무밭 보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보성군·보해양조, ‘보성녹차 잎새주’ 협약 체결

보성군은 16일 “전남 보해양조주와 군청에서 보성 차 산업 발전과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한민국 녹차수도 보성’의 우수한 원료와 보해양조의 발효·브랜딩 기술을 결합해 농업과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 모델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양 기관은 ▲보성녹차를 활용한 ‘잎새주’ 제

품 개발 ▲차 농가의 안정적 원료 공급 ▲‘녹차수도 보성’ 상표 공동 활용 ▲국내·외 판로 개척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철우 군수는 “이번 협약이 농가에는 안정적 판로를, 기업에는 혁신 제품의 기회를 제공하는 상생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보성 차 산업이 식품·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성=임병연 기자